

독서금융교육

4회 차 활동 후기

독서금융 싹쓰리

일정 & 참여 인원

1

8월 31일 토요일

2

9월 18일 수요일

3

10월 13일 일요일

4

10월 13일 일요일



이나온
(초1)

김하늘
(초1)

조유준
(초1)

Banki+ 추천 도서 (초1)



- ✓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와 나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책
- ✓ 책 면지의 퀼트 무늬가 아름다웠고, 그림 배치가 퀼트 무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.

활동지 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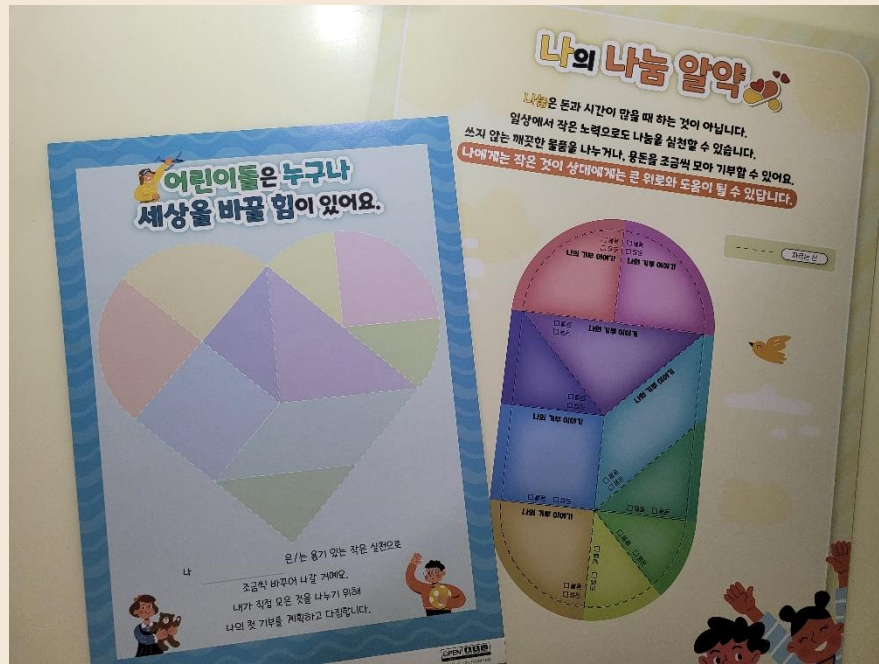
SQ3R 읽기 전략에 따라 구성된 독서금융 활동지는
(Survey, Question, Read, Recite, Review)

책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

주도적, 능동적인 읽기를 할 수 있고 메타인지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.

책을 읽기 전에 내용을 예측해보거나 훑어보면서 질문 만들기 과정이 있는 것이
독특했어요.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이 부분을 가장 고민했어요.
후반부로 갈수록 SQ3R 형식에 익숙해져 질문에 대한 답을 더 빠르게 적었어요.

교구재 소개



- ✓ 나의 나눔 알약 : 나에게서 작은 것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쓰지 않는 깨끗한 물품을 나누거나, 용돈을 조금씩 모아 기부할 수 있어요.
- ✓ 퀼트 할머니의 선물 책 속의 주인공처럼 나눔과 기부를 계획하고 실천해요.

4차 모임 활동 목표

1. <퀼트 할머니의 선물> 책 읽기
2. 활동지를 풀며 기부 계획 세우기
3. 교구재 빨리 맞추기 게임
4. 느낀 점 이야기

활동 1. 책 읽고 활동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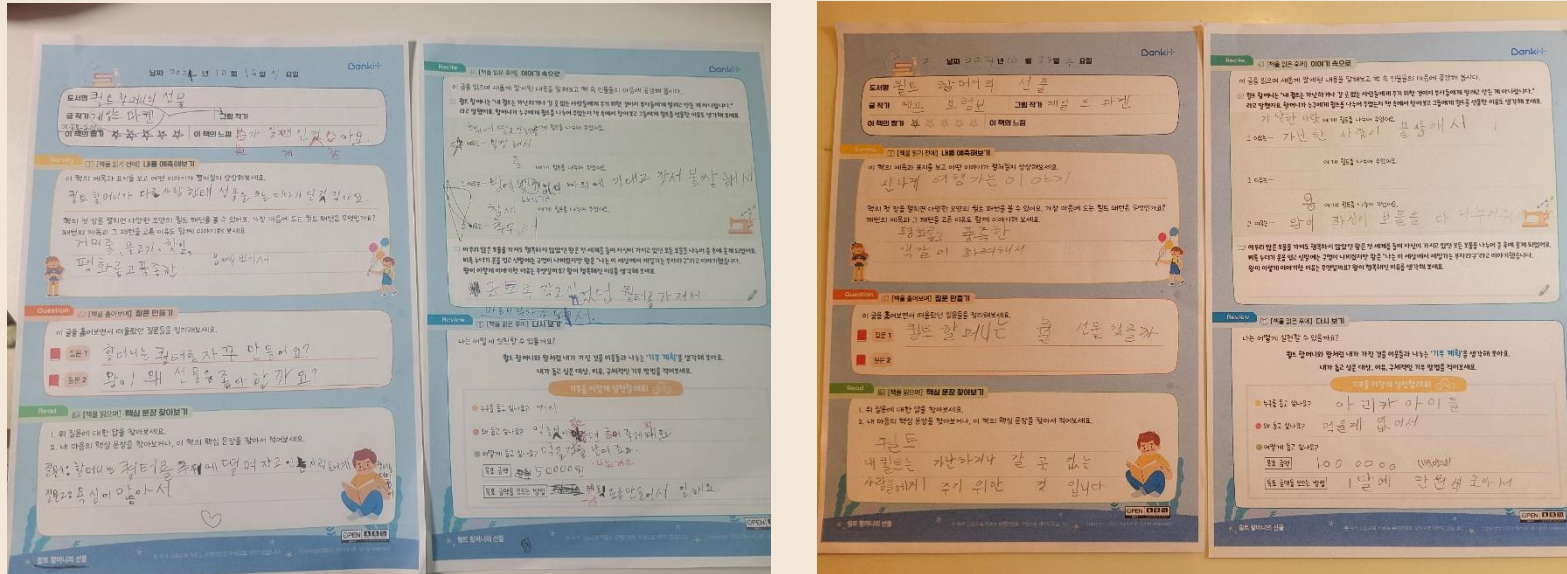
<퀼트 할머니의 선물> 책을 셋이 함께 읽었어요.
면지의 퀼트 종류를 보며 가장 마음에 드는 무늬를 골라 보고
나눔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.

활동 1. 책 읽고 활동지



아이들에게는 낫선 퀼트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
어떻게 하면 퀼트 할머니의 퀼트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며 책을 읽었어요.

활동 1. 책 읽고 활동지



퀵트는 천 조각을 하나씩 꿰매서 만드는 것임을 알고,
그림책 면지에서 마음에 드는 퀵트 패턴을 골라 보았어요.
나도 퀵트 할머니처럼 나눔을 한다면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.

활동 2. 책 이야기 나누기

<퀼트 할머니의 선물> 책을 읽고

나는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.

아프리카의 먹을 것이 부족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

한 달에 만 원씩 모아서 백 만원을 모아 보내겠다는 나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,

가난한 사람을 위해

계획표를 세워 일을 해서 돈을 모아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.

활동 3. 교구재 활동



나의 나눔 알약을 한 조각씩 떼어 내 재배치하니 ♡ 모양이 되었어요.
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.
누가 먼저 완성하는지 게임처럼 진행했더니 아이들이 최대한 집중했어요.

활동 후 배운 점과 느낀 점

하늘: 퀼트를 주지 않는다고 퀼트 할머니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왕이 나빴어요.

나온: 안 쓰는 물건을 나누고 돈을 기부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겠어요.

유준: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다 나누어 주고 없을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이 이상했어요.

활동 후 엄마들이 느낀 점

하늘이 엄마: 외벌이로 전향한 이후 기부는 안 하고 지냈는데, 이번 겨울에는 구세군 냄비나 사랑의 열매 등을 통해 아이와 함께 기부해봐야겠어요. 아이가 돈이나 물건에 애착과 소유욕이 많은데 안 쓰는 물건은 나눔하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싶어요.

나온이 엄마: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일을 해서 번 돈을 기부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기특하네요. 집안일과 심부름을 자주 시켜야겠어요. ^^

유준이 엄마: 아름다운 가게에 물건을 기증하러 갈 때 아이도 꼭 데리고 가서 그러한 물건들이 어떻게 다시 쓰이는지 보여줘야겠어요.

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

♥ 좋았던 점: 혼자 앉아서 읽었으면 오래 걸렸을 글밥 많은 책을 함께 읽었더니 각자의 소감을 나누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어요.

나의 나눔 알약 조각들을 모아 재배치했더니 ♡ 모양이 되는 교구재의 의도가 근사했어요. 시합하듯이 경쟁을 붙였더니 자기가 먼저 만들겠다고 다들 집중했어요.

★ 아쉬운 점: 마감 일정이 촉박해서(마감일 연기 전) 한 번 모임에 3, 4회 차를 진행했더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 해서 아쉬웠어요.



혼자서는 완주하지 못 했을 4회 차까지의 그룹북키트
독서금융교육,
금융교육 싹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게
완주 가능했어요.

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제, 용돈 벌기, 저축, 기부 등에
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 응원합니다!
경제교육 기회 주신뱅크잇, 감사합니다 ♡

감사합니다